

독서체계 연구의 경과와 방향

김 대 행

1. 연구의 성격과 구조

이 연구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착수되었다. 이 연구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정된 것은 진행상의 여건을 고려한 잠정적인 것이다. 이 연구와 그 구체적 실행이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독서 체계의 연구도 기획할 의욕을 갖고 있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독서에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동기화하고, 필요하고 바람직한 독서를 할 수 있게 도와 줌으로써 개인의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생활화하여, 이를 통하여 이 사회와 민족의 지적 수준의 고양에 이르는 문화화를 이 연구의 목적과 의의로 설정하였다.

독서의 유형은 문학감상과 교양독서의 두 가지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엄밀하고 정확한 분류라고는 하기 어렵지만 독서의 여러 유형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면서 독서의 방법이나 절차에서 커다란 차이를 지닐 것으로 보이는 두 갈래의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분류한 것이다.

연구는 진행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두 단계로 편성되었다. 첫 단계는 이 연구의 성격과 방향을 설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독서의 목적, 범

주, 방법의 이론적 틀을 세우는 단계였으며, 여기에 참여하신 연구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힘입어 이제 막 완결되었으며, 지금의 이 자리는 1단계 연구의 성과를 종합하면서, 이 원리에 기초를 둔 2단계 연구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된다.

2단계까지의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독서의 목록을 선정하고, 그것을 독서하는 지침의 제시 방법이 구안되면 연구는 일단 종료될 것이다. 그 다음 단계에는 이렇게 연구된 구체적 틀을 가지고 종전의 독서물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도서를 기획하여 출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바꾸어 말하면 새로운 개념의 독서 문화를 청소년들에게 정착시켜 각인의 삶을 도탑게 하는 데 귀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를 이 사회에 내놓으려는 계획이다.

2. 1단계 연구의 결과

별도의 자료로 1단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마련했지만, 오늘 이 자리의 논의를 위하여 그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 보려 한다. 1단계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들이 도출한 기본 방침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독서의 목적

‘책을 왜 읽는가’라는 질문은 ‘책은 왜 읽어야 하는가’로 바꾸어야 옳다는 결론에 이른 독서의 목적에 관해서는 정병현·김종철 교수가 발제를 해 주었다.

오늘날 학생들의 독서는 스포츠 신문이나 들여다 보는 게 고작일 정도로 질과 양에서 빈곤하다는 점, 독서가 시험문제 풀이로서의 구실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 적극적 독서 추구보다는 여유 있을 때나 하는 여가 대체물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등의 현실 점검에서 출발한 김종철 교

수는, 독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는 데서 논의를 발전시켜 청소년의 독서는 '교양 있는 시민의 형성'과 '개성적 삶을 살기'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지녀야 한다고 구체화하였다.

교양 있는 시민이란, 고발 정신만이 아닌, 자유와 민주에 투철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시민으로 정의되었는데, 이는 오늘날의 사회가 옛날과 달리 대중화·시민화됨으로써 시민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정체성을 지니지 못한 데서 여러 형태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지표 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시민다운 시민이 되려면 개성적 삶을 영위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동물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금수와는 다르다는 구별 의식을 뚜렷하게 심어 줄 수 있어야 하며, 이 일은 인류의 문화 유산을 통시적으로 간접 체험하고 또 오늘날의 세계가 지닌 문화를 공시적으로 간접 체험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인류의 문화 표상인 책을 읽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독서는 결국 자신의 발전을 위한 삶의 추구[爲己之學]라고 규정하였다.

독서의 목적이 이렇게 규정됨으로써 우리는 독서의 범주가 고전과 현대에 두루 걸쳐 설정되어야 하리라는 점, 독서의 선택이 독서 주체의 관심에 맞추어 기획되어야 하리라는 점, 그리고 독서의 방법은 '自己化'를 겨냥해야 하리라는 점 등의 시사를 얻게 된 셈이다.

독서가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식의 자동화된 의식만으로는 추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점검하면서 논의를 시작한 정병헌 교수는, 인간의 삶 자체가 자기 향상의 본질을 당위로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인간이 지닌 당대성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적 능력을 함양하고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문화 유산인 책을 통해 그 일을 추구함으로써 가장 밀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 점에서 독서는 삶의 본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료화해 주었다.

그런 관점에서 문학감상은 결과적으로 '實用性'이라는 목적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서의 실용성은 단순한 이용의 개념을 넘

어선 본질적 실용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 문학의 본질을 언어 예술, 허구의 산물, 상상의 산물, 독자와의 대면에 의한 구체화로 제시한 정교수는, 문학이 허구의 산물이므로 무질서한 현상을 관계 있는 것만으로 압축해 보여 줌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찾게 한다는 점과, 문학이 상상의 산물이므로 인간이 지닌 체험의 제한성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해 준다는 점, 그리고 문학이 언어예술이므로 예술의 즐거움과 체험 및 깨달음을 맛봄으로써 문화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였다.

문학이 지닌 이러한 여러 가능성들이 독자와의 대면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지식이 가교가 되어 삶의 질서를 지니게 하는 이성적 능력과 풍부한 감동에 이르는 정서적 고양을 아우를 수 있게 해 주는데, 이러한 효용을 가리켜 실용성이라고 명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독서의 범주나 위계가 자기 향상을 위하여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 방법이 또한 '自己化'를 도달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귀중한 시사점을 얻게 되며, 이 점에서 두 분의 발표는 서로 다른 출발에도 불구하고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이 점에서 우리의 연구는 독서가 수단이나 방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애당초의 목표 설정이 정당하고 또 필연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 셈이다.

2) 독서의 범주

'무슨 책을 읽을 것인가'로 압축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네 분이 분야별로 발표를 해주셨다. 네 분의 발표를 통해 얻은 것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결론은 청소년들의 성장 단계에 따른 배려가 필수적이라는 '위계화'의 원리와, 삶의 다양성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영역 '다양화'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앞으로 도서 목록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

인문·사회 분야의 교양독서에서 읽어야 할 도서를 범주화하는 데 중점을 둔 진교훈 교수는, 교양의 개념을 ‘자아의 형성’으로 전제하면서 교양독서로서 고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생활교양을 위한 독서 영역과 고전교양을 위한 독서 영역으로 나누어 구체화하였다.

생활교양을 위한 독서는 의식주, 예술, 건강·위생, 놀이, 생명 존중, 생활응용 차원의 과학 등을 위한 독서물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 방면의 자료들을 예시하였는데, 특히 두드러진 것은 각 방면에서 우리의 전통과 관련된 독서물을 비중 있게 강조하였다.

고전교양을 위한 독서는 철학, 종교, 위인전기, 과학사, 역사, 지리, 기상, 풍속, 동식물, 청소년심리, 사회생활(법·경제 등) 등의 분야를 제시하고 각 분야에서 고전에 해당하는 책들을 예시함으로써 구체화하였다.

교양독서의 범주를 논의한 이 발표에서도 우리는 독서의 목적이 자아의 형성에 있다는 점과 따라서 독서 범주의 광역화 내지는 균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독서의 방법이 ‘자기화’를 도달점으로 겨냥해야 한다는 점 또한 재확인하게 되었다.

자연과학의 세계에 대한 앎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더구나 산업사회·정보화사회로 변화해 가는 오늘과 미래의 삶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한 홍종배 교수는 자연과학 분야의 독서에서 문제되는 것은 일반적 언어로 된 대중적 독서물의 빈곤으로, 이에 대한 우려를 앞세우고 있다. 이는 과학의 대중화라는 일이 그다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던 그 동안의 사정과도 관계가 깊다는 점에서 이해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앞으로 이 연구의 다음에 이어지는 출판의 과정에서 이 분야의 상당 부분은 능력 있고 새로운 집필자를 모셔 새로운 원고를 써야 할 것이라는 예감을 갖게 한다. 성격이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서울대학교 자연대학의 교수 31인이 공동 집필한 ‘21세기와 자연과학’이라는 책도 우리에게 좋은 시사를 주리라고 생각한다.

자연과학 분야의 독서 범주를 그 학문 분야라 할 수 있는 기술→생물학→지구과학→화학→물리학→수학의 순서로 배열하고, 앞쪽이 국소적이

며 뒤로 갈수록 광역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한 홍교수는 피아제의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학교 급별 독서 목록을 구상해 보여 주었다.

발달 단계로 보아 구체적 조작 단계로 지칭되는 초등 학생들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야 하며, 이러한 분야가 생물학이나 지구과학 또는 발명품과 같은 기술의 분야이므로 '곤충기'나 공룡 또는 그 시기의 지구 상황 그리고 발명가의 태도나 집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책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중학생은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므로 어느 수준의 추상적·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므로 각분야의 흥미를 고양할 수 있도록 SF나 진화론 컴퓨터 등에 관련된 것이 적당하며, 다만 이 시기에 난해한 이론을 소개하거나 해서 과학에 오히려 등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곁들이고 있다.

피아제에게서는 중학교 이상의 발달 단계 설명이 없지만, 고등학생은 당연히 추상적·논리적 사고의 심화 단계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시기에는 과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과학의 영향, 기술과 미래 사회 등을 다룬 독서물이 적당하고 이 방면에서 주목할 것으로 카오스, 인공지능, 쪽거리 등의 이론을 들고, 자연과학 학문 전체를 조감하는 내용이나 과학자의 자서전 같은 것도 추상적·논리적 사고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인간의 발달 단계와 문학작품 감상과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인지·정서에 못지않게 도덕적 발달 단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논의를 시작한 김중신 교수는 콜버그의 이론에 근거를 두어 작품 선정에 주제적 측면의 원칙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전부 여섯 단계로 구분되는 이 주제적 측면의 선정 기준으로, 제1단계인 국민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는 결말 구조에 따른 선악 구분의 주제를, 제2단계인 국민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는 개인적 갈등을 극복하는 주제를, 제3단계인 중학교 저학년에서 중학교 고학년 수준에서는 이타적 동기를 바탕으로 한 주제를, 제4단계인 중학교 고학년에서 고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는 민족, 조국 등의 집단적 당위를 다룬 주제를, 제5단계인 고등학교 저학년에서 고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를 다룬 주제를, 그 이상의 수준인 제6단계에서는 개혁의지를 담은 주제를 적절한 독서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홍부전’을 분석해 보인 김 교수는 이 이야기의 어디까지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그 주제가 권선→권선징악→우애로 변모한다는 점을 보여 준 다음, 따라서 화살표의 방향에 따른 위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가시화하였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외국 작품이 전무한 사실을 개탄하면서 외국문학의 독서 범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한기상 교수는 중학교 교과서 게재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 적절성을 검토함으로써 이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각각의 작품에 대한 적절성 판단은 여기서 다시 요약하지 않겠거니와 이러한 검토를 통해 드러낸 독서 범주의 결정 원칙은 ‘적절성’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절성이라 함은 작품이 지니고 있는 세계의 연령과 환경이라는 두 조건과 독자의 상황이 밀접한 상관을 가질 때 문학감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뜻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국민학교 수준에서는 굳이 외국문학을 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나 왜곡되지 않은 흥미와 순수성을 감안하여 오리지널 동화나 긍정적·희망적 전망이 가능한 시 작품들을 읽도록 하고, 중학교에서는 연령과 환경의 적절성을 고려하되 고등학교의 수준에서는 성인이 될 준비의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카프카의 변신이나 심판 등도 독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밝혀 주었다.

기본적으로 문학감상은 인생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행위로 넓게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는 한교수는 문학이 재미로만 일관할 수는 결코 없으며, 따라서 진지성을 추구하는 다소 지루해 보이는 작품도 독서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과, 백인 중심의 고전 선정 기준에서 이제는 시각을 넓혀 전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점을 일러 주고 있는데, 이 점에서 동양 그것도 제3세계에 해당하는 지역의 문학에까지 우리의 관심이 미쳐야 할 것임을 시사받는다.

문학감상의 독서 범주를 논의한 두 분의 발표에서 딱 집어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전제는 문학이 인지적·정서적·도덕적 발달 단계에 근거하여 감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계성·광역성·균형성의 기준이 우리의 독서 목록 선정의 구체적 기준으로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는 우리가 검토해 온 독서의 목적이나 방법에 동일한 시사를 던질 것으로 이해된다. 거듭거듭 확인한 바이지만 독서의 목적은 자기 성장에 있으며, 따라서 그 방법은 자기화를 겨냥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것은 이번 연구팀의 공통된 합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독서의 방법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로 번역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발제를 맡은 박인기, 한철우 두 분은 참으로 조화롭게도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문제에 접근해 주었기에 우리의 연구를 위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겠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한 박인기 교수는 문학감상을 자기 교육의 상태를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활동으로 규정하면서 독서에서 강조되어야 할 요소가 높은 수준의 자율성, 독서행위에 대한 가치 부여, 올림의 추구 — 이 세 가지라고 분석하였다.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란 스스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방법이 구안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내가 아는 것을 나는 안다’는 말로 바꿀 수 있는 메타 인지의 구조화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내게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독서행위에 대한 가치 부여란 능동적으로 문학감상에 몰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이해된다. 이를 위해서는 문학 자체에 대한 앎이 얼마간 필요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비평적 과정과 흡사한 감상 과정을 펼치도록 도와 주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울림’의 추구는 작품에서 얻은 일차적 정보를 독자의 삶과 조응시킴으로써 그것의 정보화를 넘어선 의미화를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가 그 작품의 세계에 대한 앎에 그치는 것일 수 없으며, 결국은 나에게 던지는 의미의 문제라는 점은 독서가 자기 향상과 자기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합당한 목표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런 근거에서 구체적 방안으로 독후감에 해당하는 글쓰기의 방법을 권장하고 있는 박교수는 문학감상의 과정을 텍스트 내적 세계에 의한 감정이입적 해석의 단계, 주관성의 교차를 통한 조절과 동화의 단계, 정신의 질적 고양 단계로 구분한 다음, 그 구체적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안하였다.

첫째, 관심과 참여 적극화, 둘째, 텍스트와 세계의 상호 조화, 셋째, 감정이입과 탈감정, 넷째, 텍스트의 상호성 추구, 다섯째, 울림과 깨침의 수용, 여섯째, 잠복 효과, 일곱째, 확산·수렴 가치화가 그것이다.

이 구체적 설명은 별도의 자료로 미루거니와,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편찬할 독서 자료의 체계의 구상에 중요한 시사를 얻게 된다. 그것은 이 일곱 가지 요소가 적절한 순차성을 가지면서 독자를 길안내할 수 있도록 배치함으로써 방법 또는 절차적 효율성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이러한 절차성을 좀더 구체적화한 한철우 교수의 발제는 독서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이해(comprhension)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준비→읽기→재구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준비의 단계에서는 그 글을 읽기 위한 배경 지식을 환기할 수 있어야 하고, 전반을 개괄적으로 조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개될 독서의 내용에 대하여 예측하는 활동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 읽는 과정에서는 어휘, 구조, 질문 만들기와 답 찾기, 요약하기, 노트하기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구성의 단계에서는 준비 단계에서 행한 여러 절차들에서 마련된 앎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교수의 이러한 미시적 방법 제시는 독서를 문제 의식을 가지고 유목

적적으로 해답을 구하는 문제 해결의 과정, 단편적이 아닌 의미망의 형성에 이르는 의미 파악의 과정, 내용으로부터 자기를 추구하는 일반적 사고 과정, 현실에 비추어 연상하고 점검하는 추론의 과정, 능동적으로 자기를 관련시키는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으로 봄으로써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두 분의 방법 구상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구체화할 지침의 틀에 관해 중요한 시사를 얻게 된다. 즉, 독서 방법의 안내는 전·중·후의 세 과정을 고려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으리라는 점인데, 전단계에서는 준비와 길잡이와 예측을 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는 독서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적정한 수준에서 도움자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리라는 점, 후의 단계에서는 재구성 또는 자기화를 위한 구체적 단계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 등이다.

3. 2단계 연구의 방향과 절차

1단계 연구는 많은 악조건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우리는 이처럼 귀중한 성과에 도달하였음을 매우 기쁘게 그리고 고맙게 생각한다. 참으로 허허한 바탕 위에서 시작한 일이고 도무지 막연해 보이기만 했던 일이었지만 이만한 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헌신해 준 연구진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하고, 또 이 연구에 착수한 것이 참으로 보람있고 참 잘한 일이라는 소감이 다만 개인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소중한 결과들을 얻어 냈지만, 앞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할 2단계 연구는 1단계 못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그런 만큼의 중요성이 있다 하겠다. 이제 앞으로 2단계 연구가 수행할 과제를 단계별로 나누어 그 논의의 단서로 삼고자 잠정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방안은 결코 결정된 것이 아니며 논의를 위한 단서라는 제한적 의미만을 지닐 따름임을 거듭 밝혀 둔다.

1) 내용 체제 결정 (10월 27일)

(1) 편찬 방향 정립

편찬 방향 정립은 독서물의 형태에 대한 대체적 윤곽을 그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가운데는 책의 판형, 활자의 크기 등의 문제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전문성을 요하는 일은 출판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좋을 듯하다.

㉞ 독서 지침

중요한 일은 내용 편집의 성격일 것으로 본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앞의 1단계 성과라 할 수 있는 독서의 길안내를 채택할 것인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의 책들이 작품 해설이나 작가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그러한 독서물과의 변별은 물론이고, 그보다도 학생들이 홀로 앉아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친절한 길안내를 내용으로 담은 체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원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㉟ 단계별 지침

독서 지침을 마련한다는 안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독서의 3단계(구체적으로는 7단계로 제시한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3단계의 세분화로 간주할 수도 있을 듯)인 준비, 읽기, 자기화에 따른 지침의 체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내용 체제 결정

편찬의 방향이 결정되면 여기서의 제안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 체제의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㉞ 위치

- 준비를 위한 자료 - 본문 (각주 위치에 지침, 도움말 제시)
- 자기화를 위한 자료

㉑ 준비 단계의 내용

사전 지식을 위한 자료 - 지은이 소개, 내용 개관, 창작 배경, 등장 인물 또는 관계 자료의 사진·그림 및 설명

- 예측을 위한 자료 - 도달 목표인 자기화에 이르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문제 또는 설명

㉒ 읽기 단계의 내용

- 어휘, 구절, 관련지식 등의 설명 및 도면
- 구조 파악을 위한 설문 또는 설명
- 질문-해답의 활동을 돕기 위한 문제의식 환기 방식
- 요약·노트의 요령 및 권유
- 텍스트와 세계의 상호 조화를 위한 도움 자료(삽화, 사진, 도표 등)
- 감정이입과 탈감정을 위한 도움 자료
- 상호텍스트적 이해를 위한 도움 자료

㉓ 자기화 단계의 내용

- 울림과 깨침을 위한 도움 자료 (설명적 설문)
- 잠복 효과를 위한 도움 자료 (설명적 설문)
- 확산·수렴적 가치화를 위한 도움 자료

2) 독서 목록 결정 : 문학감상 분야 (11월 3일)

(1) 독서 목록 제안

어떤 글을 읽힐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될 사항은 1단계 연구에서 밝혀진 위계성·광역성·균형성 등이 될 것이다.

㉔ 수량

대상이 되는 글의 수효는 정해진 바 없다. 책으로 출판하는 계획은 문

학감상 100 권, 교양독서 100 권 도합 200 권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지만, 이 때 100 권이라는 말이 어떤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열린 떠올리기 쉬운 숫자이기 때문에 제시해 본 것일 따름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소설은 한 작품이 한 권이 될 수 있지만, 시나 수필 혹은 동화 등은 여러 작품을 모아야 한 권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 점에서 책 권수의 형평은 고려되기 어려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포괄성과 적절성이 될 것이며 수량의 문제는 거기에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다.

㉞ 단계

독서 자료의 선정은 초·중·고의 학교 급별로 단계화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럴 때 국민학교는 학년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른다. 이 점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이다. 국민학교를 저·중·고 또는 저·고의 단계로 구분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동일한 글이 초·중·고에 겹쳐서 제시되었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㉟ 영역

교양독서 분야 - 인문·사회·과학의 비율을 5 : 3 : 2로 제안해 본다. 이것은 무슨 근거를 가졌다가보다는 자료의 분포가 그러하리라는 인상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학감상 분야 - 시(시조), 소설, 수필, 희곡(시나리오) 등을 2 : 1 : 1 : 0.5로 제안해 본다. 이것도 충분한 근거에 입각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은 교양 분야와 같다.

㊱ 시대

고전과 현대의 비율을 5 : 5로 제안해 본다. 참고로 5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편찬 때 교육부가 제시한 비율은 4 : 6으로 현대가 많도록 배

정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각계가 혹독한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목록 선정의 과정에서 이 비율은 선정할 만한 자료가 그만큼 있는냐는 현실성에 비추어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본문의 결정

고전 표기나 외국어로 된 자료일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선례는 찰즈 램의 셰익스피어 번안일 수 있다. 독자의 단계에 따라 새로 쓰거나 압축하거나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할 경우 독서의 기대 효과는 어떤 변모를 가져 올 것인지가 이미 논의된 여러 관점들에 비추어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할 경우 필자의 선정이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구체적 거명은 어렵더라도 어떤 신분의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정도의 자격 조건 정도는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선정 이유 작성

앞 단계에서 제시하여 논의한 자료 목록에 대하여 각 자료마다의 선정 이유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분량은 200 자 정도. 윤독과 비슷한 방식으로 선정 이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으로써, 선정된 목록의 적절성 또는 의의가 재검토·확정될 것이다.

3) 독서 목록 결정: 교양독서 분야 (11월 10일)

영역상의 특성에 따른 다소간의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체로 문학감상 분야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여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맺는 말

거듭 밝혀 두지만 이상의 제안은 논의를 위한 회의 자료의 성격을 띠는 뿐이다. 이 밖에도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런 문제들은 논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사실 독서 목록이 결정된 다음에 내용 체제를 생각하는 것이 더 순조로울 수도 있겠지만 목록의 선정이 많은 시간을 요한다는 점 때문에 거꾸로 접근하는 것을 제안해 본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리하여 세 차례의 논의가 끝이 나면 12월 2일에 1단계와 2단계의 성과를 한데 모아 세상에 알리는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기서 논의된 바를 수용·참고하여 구체적으로 필자를 선정하고 출판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

시간을 단기간으로 잡은 것은 여러 가지 고려에 의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헌신만을 요구하는 무례를 범하는 일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일이 갖는 의의와 우리의 순수한 열정으로 이 무례를 덮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청한다.